

光日春秋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고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즉, 5극(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초광역특별자치단체)과 3특(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의 신 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 '56개 지역별 북생활권', '4+3 광역특화발전' 전략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보여줌으로써 이해와 공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초광역권으로 포함될 지자체들이 초광역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상상, 협력적으로 추진할지, 그래서 주민들의 체계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그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자체 각각의 자립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5극 3특' 성공의 초석

역량과 초광역내 지자체 간 협상력이 지역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과를 결산해 보면 우선 주민이 지역주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한 점, 그리고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이 대표적인 성과다. 지방자치의 틀이 정립됐기 때문에 국민주권론과 정치발전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 밖에도 지방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주민참여가 확대돼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어가는 점도 큰 수확이다.

반면에, 지방자치의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인 자치제도, 미흡한 자치권과 자치역량,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하지 못해 나타난 지방경쟁력 저하와 함께 중부형성으로 인한 남비와 비효율은 심각하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광역과 기초단위로 나뉜 2층제 구조다. 그런데 우리의 광역단위는 인구 면에서 그 규모가 지극히 적은 편이다. 광역지자체의 평균인구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도권을 빼면 170만 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글로벌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하다. 외국은 이미 1000만 명 내지 1억 명 규모의 메가시티와 광역연합 등 초광역권을 구축해서 지자체 간 연대의 협력으로 경제, 교통, 환경, 복지, 고용,

재해·재난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작고 인위적인 행정단위 속에서 지자체마다 각기 폐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 돈은 많이 들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일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앙주도의 하향적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방식을 이제 주민중심의 상향적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균형성장은 더 이상 중앙정부 중심, 지방 줄세우기, 하드웨어 중심,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따라서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이 주도하되 중앙은 총괄·조정·지원·평가 중심의 상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내지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자체 간 '선 협력, 후 통합'의 원칙 하에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접근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균형성장의 기여도가 큰 사업 내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 선정·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조성이 그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극 3특'을 핵심으로 한 국가 균형성장이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심의 후속 정책연구와 구체적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종교칼럼



김윤명 광주 원음방송 교무

살다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종교는 믿음이라는 방향아래 수없이 원리와 그 위력에 대해서 들어오고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한 제기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타(自他)간 불신(不信)의 문제를 정리, 해소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즉 '내가 상대의 불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상대가 나에게 받는 불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이며, '어떻게 하면 상대의 믿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와 '상대가 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이다.

이 문제가 비록 줄기는 네 가지이나 문제 해결의 소재는 같은 것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마음 씀씀이 이 마음속에 내장된 당연한 인격적 요소는 믿음을 주는 소재요, 부당한 비인격적 요소는 불신을 자

믿음과 불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아내는 소재이다. 그리하여 당연한 인격적 요소의 종류가 수없이 많으나 그 공간이 되고 강령이 될 만한 것으로 간주려 설명하자면 진실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은혜롭고 덕스러운 마음이다. 진실성이 확인될 때 믿음이 가게 되고, 지혜롭다는 것이 감지될 때 믿음이 가게 되고, 덕(德)이 있어 은혜로움이 보이면 믿음이 가게 된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삼대(三大) 강령이요, 축이요, 근본이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실성이다. 진실성이 무너지고는 다른 좋은 소재도 무의미한 것이 되며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실성으로, 믿음의 최후 보루이다. 마음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다 진실해지고 마음 하나가 거짓되면 일체가 거짓으로 화하여 믿음을 붕괴시킨다.

두 번째는 행실이니 행실이 바르면 믿음을 주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믿음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행실이 계행 청정하고, 예절 바르고, 신실하고, 이타행(利他行)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을 불러오고, 행실을 무소기탄(無所忌憚)으로 함부로 하여 계행이 없고 예절이 없고 가식과 이기적 행을 하게 되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에 따라 덮여쓰는 짓값이 무섭게 엄습해 온다. 행실에서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 풍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시 믿지 않으려한다. 여기서 잃은 불신은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마나니 그 행실 갖기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말씀이니 말씀씨가 법이 있으면 믿음을 주고 말씀씨가 법이 없으면 믿음을 잃게 된다. 즉 선한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 겸손한 말, 감사의 말, 참회의 말, 다짐의 말, 칭찬의 말 등은 믿음을 불러오고 악한말, 거짓말, 꾸미는 말, 비정한 말, 오만한 말 등은 믿음을 잃게 만든다. 속담에 '천 냥 빛도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 잘 하면 천 냥도 갚아 줄 만큼 크게 믿음을 준다는 말이다. 이것은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참으로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한다. 인간사(人間事)가 말로 이루어지고, 온갖 세상사를 말로 요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이란 화복(禍福)의 문(門)'이라 하였다. 말 한마디에 되고 안 되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재앙과 행운이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말은 믿음과 불신을 좌우하므로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얕질러진 물'이라고도 한다. 말은 마음과 행실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즉흥적이다. 그리하여 좋은 말, 즉 선한 말, 진실한 말, 자비의 말, 감사의 말, 참회의 말, 겸손의 말, 다짐의 말, 칭찬의 말이나 이 외에도 좋은 말만을 자주 할수록 믿음 세계를 형성하고 정화하고, 드디어는 식의 세계까지 정화하여 그 상서로움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 씀과 행실과 말씀, 말씀과 행실과 마음 씀이 믿음을 생산하는 필수 소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굳게 명념했으면 한다.

충장축제, 시민 모두의 잔치가 되길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흔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충장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했고 이제는 광주 대표 거리축제로 우뚝 섰다.

이 모든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축제 기획위원으로 충장축제의 시작을 함께한 이후에도 구위원으로, 그리고 현재는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충장축제 예산 확보와 축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충장축제는 올해로 22회를 맞는다. '추억의 7080'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세월이 물결 22년이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방문객을 유인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있을 터.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테마거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충장 페어리드'와 '아시아 문화의 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축제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점진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충장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축제를 거듭할수록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충장축제가 특성인의 지적을

과시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지역민의 우려를 접할 때면 더욱 그렇다. 충장축제가 시민들의 축제라는 의미를 되새켜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충장축제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축제를 즐기고 참여하는 시민이다. 이 축제는 그 누구의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추억을 만드는 시민 모두의 잔치여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 충장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전의 충장축제를 통해 쇠퇴했던 충장로와 금남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축제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통의 장이며 광주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충장축제이다. 화려한 볼거리와 풍성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축제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것이 충장축제의 핵심 기능이다.

22번째 가을, 광주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충장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장축제에서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광주만의 시민 잔치가 언제나 풍요롭게기를 희망한다.

社說

금호 박삼구회장 횡령·배임 무죄 '환영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 재판 결과 횡령·배임 혐의 부분에서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배임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완화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를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라며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를 주문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업인을 옥죄는 배임과 횡령 등 경제 형벌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박 전 회장이 받는 배임·횡령 혐의도 투자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에 피해

를 입히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쓴 것도 적법한 과정 속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호그룹은 호남인들에게 금지와 함께 향수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기업이다. 한때 재계서열 7위까지 오를 정도로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지역 인재들의 채용 창구 역할을 했고 국내 메세나 운동의 효시를 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46년 창립이후 몇 차례 위기에서도 오히려처럼 일어섰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위기를 넘지 못하고 현재 간 계열분리로 38년 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음에도 여전히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박 전 회장의 명예회복은 호남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켰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단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배임죄가 대표적인데 투자를 잘못했다고 감옥에 보낸다면 누가 회사를 운영하겠는가. 기업이 살고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학생 불법 유치 제한대, '좀비대학' 이곳뿐일까

영양 세한대의 불법 학생 유치 실태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사립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세한대의 불법 학생 모집은 미달학과에 만족도를 입학시킨후 다른 학과로 보내는 전과 형식을 빌려 이뤄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 과정에 모두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4년 동안 신입생 567명과 편입생 183명을 규정 외 전과시켰다고 한다.

추가모집 과정에서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나 합격자 사정 없이 55명을 선별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학적에 그대로 두고 뒤늦게 자퇴나 제적 처리하는 등 '유령학생'도 양산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은 전쟁을 방불케 한지 오래됐다. 학생 유치를 위해 고교를 찾아 영업을 하

는 교수들의 모습이 일상이 됐고 장학금과 해외 연수 등을 내건 대학들이 줄을 섰으나 학생난은 여전하다. '뱃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문 닫는 대학은 별로 없다.

세한대 사태도 결국은 대학의 이런 현실 속에서 이뤄진 자구책이었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교육부는 세한대의 불법 학생 유치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비리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좀비 대학'이 비단 이곳 만은 아닐 것이다. 신입생은 좀비 대학에 혈액을 제공하는 돈줄이다. 교육부는 차체에 대학들의 불법 학생 유치 전수조사에 나서 그에 합당한 징계와 사법 처리도 병행해야 한다. 좀비 대학이 존속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학생 유치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 바다의 넓이와 거리가 내 생각을 가로막았고. 소설가 김훈은 신안 흑산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남짓 가야 하는 흑산도는 거친 바다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오지다. 유배지였던 흑산도에 대해 김훈은 '생각이 멈출 정도로 말고 험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흑산도에 다가서면 바다 한 가운데 검은 빛이 먼저 눈에 띄는데 이는 흑산도에 자생하는 동백나무가 멀리서 바라보면 검은 색으로 보이는 탓이다. 과거 황금어장에 몰려든 어선들로 "돈을 포대로 던져 놓았다"는 말이 돌 정도로 흑산도는 사람들의 발걸음 분주했

흑산도 영화제

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감소에 교통 불편 탓에 인구소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흑산도에는 지난 8월 기준 2045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적막한 흑산도에 지난 8월 15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휴가철이면 관광객이 밀려들기 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렀지만 주민과 관광객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첫 흑산섬영화제의 초창작은 흑산도의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흑산도 파시'(강제운·최현정 공동연출, 강호진 촬영감독)였다. 부둣가 주변 배 위에서 생선을 사고팔던 파시는 흑산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억하는 섬 주민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박수를 치거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해가 저물면서 불어오는 바다 바람과 섬마을의 고요는 관객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영화제가 열린 사리마을은 '자산어보'를 쓴 정

약전의 유배지였고 마을엔 그가 머물던 사촌서당이 남아 있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했다. 백미는 단연 참전용사이자 나팔병 출신인 90세 류준영옹의 연주였다. 하모니카로 '고향의 봄'과 '오빠생각'을 연주하자 박수 갈채가 멈추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흑산도의 멋진 도전'은 섬에 활기를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오광록서술취재본부장 kroh@

기고



홍기열 광주시의원

가을의 문턱,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으레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충장로와 금남로를 가득 메운 활기찬 인파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향연이다. 이때 만큼은 계층, 남녀노소 간 장벽이 허물어진다. 그야말로 동네잔치이다. '광주 추어의 충장축제'가 그렇다. 지금은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축제로 굳건히 자리 잡으며 전국에서 지역 축제의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배우고 익히려 광주를 찾고 있다. 광주시민으로서 몹시 뿌듯하고 감격스럽다.

새삼 충장축제의 원류를 기억에서 끄집어낸다. 2003년 광주시 동구 유태명 시장의 기획으로 동구청 운동장에서 열린 '서석축제'가 그 시작이다. 필자는 당시 조동림 시장보좌관이자 이명종 상인회장, 소수우 고문, 유영욱 당시 유성촌 대표 등과 함께 뜻을 모아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첫 도전이 소기의 성과를 남겼고 이듬해인 2004년 '제1회 광주 추어의 충장로 축제'로 공식적인 포문을 연 것이다. 처음 축제가 시작될 때만 해도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텅 비어버린 거리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